

수도권 원정 9연전 계속... '9위 탈출' 쑥스러운 목표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9위 탈출'이라는 쑥스러운 목표를 내세워 수도권 원정 9연전 일정을 이어간다. KIA는 지난 주에도 1승 4패로 마이너스 전적을 기록하면서 8연승 질주를 펼친 한화 이글스에 달미를 잡히면서 마침내 9위까지 내려앉았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1패를 면한 한 주였다. 지난 29일 키움전에서 앤더슨이 1회에 단 4실점을 하면서 0-4로 뒤지고 있던 2회초, 폭우가 내리면서 우천 노게임이 선언됐고, KIA는 패배를 지웠다. 짜릿한 승리로 있기는 했다. 올 시즌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던 LG 플러티코를 상대로 1일 원정 경기에서 5-3 승리를 만들었다. 대체 선발 김건국이 나선 경기에서 기록한 승리인 만큼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2일 KIA는 대체 선발 이정용을 내세운 LG에 1점을 뺏는데 그치면서 1-3패배를 기록, 1승 4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지난 주 KBO리그 토종 에이스로 발돋움한 키움 안우진을 상대로 5점을 뺏고도 연장 11회 승부 끝에 5-7패를 기록하기도 했고, LG 김현수에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LG전 이어 SSG·KT와 대결
김선빈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
김도영·박찬호 등 좋은 자원
김종국 감독의 활용 여부 관건

4패라는 결과는 물론 과정보도 좋지 못했던 한 주였다. 잠실에서 1승 2패로 루징시리즈를 기록한 KIA는 문학으로 장소를 옮겨 2위 SSG 랜더스를 상대한다. 이어 수원으로 가서 KT 위즈를 상대로 수도권 9연전 일정을 마무리한다. 상대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KIA의 상황이다.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이의리의 제구 잡기 등 벤치에서 손 쓸 수 없는 변수는 있지만 전력이나쁜 것은 아니다. 마운드에 특별한 부상 선수가 없고 지난 2년 무리로 활약했던 정해영도 긴 공백을 깨고 마침내 '스피드'를 더해 1군으로 돌아왔다. 정해영이 없는 사이 마무리 역할을 맡은 최지민도 지난 1일 LG전에서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2점 차 승리를 지키는 등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타선 상황도 좋다. 김도영, 나성범의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재활군'이 됐던 김선빈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6월 17일 NC경기에서 수비 도중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던 김선빈은 지난 1일 퓨처스리그에서 두 번째 경기를 소화하는 등 빠른 페이스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또 변우혁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빠졌지만 이를 대신해 1군으로 콜업된 황대인이 지난 주말 LG를 상대로 7타수 4안타의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1루 경쟁을 재점화했다. 나성범이 들어선 외야의 경쟁도 뜨겁다. 나성범의 복귀로 대타 자원으로 역할이 막중해진 고종욱도 지난 주 득점권에서 4타수 4안타의 좋은 성적을 냈다. 무엇보다 KIA의 '스피드'가 위협적이다. 김도영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최원준이 전역하면서 '광속 테이볼 세터'를 구성하게 된 KIA는 9번 박찬호까지 리그에서도 손에 짚는 스피드 라인을 갖추고 있다. 공수에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은 갖췄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김종국 감독이 성적의 키를 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올 프로야구 관중 400만명 돌파

경기 당 평균 1만1118명

2023 프로야구가 4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지난 2일 잠실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 2만959명이 입장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 5개 구장에 5만5869명이 찾으면서 올 시즌 KBO 누적 관중이 404만7120명이 됐다. 전체 720경기 중 절반 가량이 364경기 만에 이뤄진 400만 관중이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 1118명이다. 지난해 총 관중은 607만6074명, 평균 관중은 8439명이었다. 올 시즌 매진 경기는 총 28차례 기록됐다. KIA

도 400만 관중 돌파에 한 몫 했다. KIA는 4월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개막 2연전을 만원 관중(2만 3000명)앞에서 소화했다. KIA가 잠실을 찾은 5경기에서도 매진이 기록됐다. 4월 29·30일 LG전에 이어, 5월 13·14일 두산전에서도 매진이 기록됐다. 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1일에도 KIA와 LG가 맞붙은 잠실에 2만 3750명이 입장해 올 시즌 28번째 매진 경기가 만들어졌다. 한편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35경기에는 35만5707명이 찾았다. 평균 관중은 1만163명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아마당구 1위 한지은 프로 데뷔 첫승

여자 3쿠션 아마추어 랭킹 1위 출신인 한지은(에스아이)이 프로 데뷔 첫 승리를 거뒀다. 한지은은 지난 2일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3-2024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 & 안산 PBA-LPBA 챔피언십' LPBA 1차 예선에서 송민지를 상대로 27이닝 만에 24-18로 승리하고 2차 예선에 진출했다. 지난달 열린 시즌 개막전인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 첫판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지은은 이번 투어에서는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한지은은 10-11로 끌려가던 16이닝째에 하이런 5점을 앞세워 경기를 뒤집은 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지은은 3일 2차 예선에서 허지연을 상대로 64강 진출에 도전한다. 개막전 8강에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한 '슈퍼루키' 장가연(휴온스)도 무난하게 첫판을 통과했다. 박초원을 상대로 26이닝 동안 하이런 4점 등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지 않고 20-15로 승리했다. 장가연은 2차 예선에서 류세정과 만난다. /연합뉴스



한지은

신유빈-전지희, 만리장성 넘어 여자복식 우승

자그레브 탁구 중국에 재역전승

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 조(4위)가 중국 선수를 꺾고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테너 자그레브 여자 복식 우승을 거뒀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2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복식 결승에서 첸텐아-류웨이산 조(중국·3599위)에 3-2(11-6 8-11 8-11 12-10 11-8) 재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5월 더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36년 만에 여자 복식 은메달 이상의 성적을 합작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지난달 중순 WTT 컨테너 라고스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대회에는 중국-일본의 강자들이 단식을 중심으로 경쟁했고, 여자 복식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세계 1-3위인 중국의 쑤잉사-왕만위, 천멍-왕이디, 일본의 이토 미마-하야타 하나 조가 불참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이날 게임 스코어 1-2로 뒤진 상태에서 맞은 4번째 게임에서 9-10까지 밀려 패배 위기에 몰렸으나 듀스 승부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짜릿한 재역전승을 일궜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일본의 21위 히라노 미우가 '최강' 쑤잉사(1위-중국)를 4-3으로 제압하고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남자 단식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



신유빈(오른쪽)·전지희가 2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월드 테이بل테니스 여자복식 결승에서중국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7위 링가오위안이 1위 판전둥을 4-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선수들은 3일 개막하는 WTT

스타 컨테너 류블라나(총상금 25만 달러)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강한 비 변수에...우상혁 2m16 못 넘고 실패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우상혁(27·웅인시정)이 '강한 비'가 만든 변수 속에 '기록'을 만들지 못하고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경기를 마쳤다. 우상혁은 3일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16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바를 건드렸다.

이날 경기장에는 강한 비가 내려 경기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경기는 2m08부터 시작했는데 우상혁은 2m08과 2m12를 패스하고, 2m16에서 첫 시도를 했다. 참가 선수 9명 중 가장 늦게 경기를 시작한 우상혁은 1~3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다. 우상혁이 맞은 '2023년 실외 시즌 첫 시련'이었다. 우상혁은 5월 6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위(2m27), 황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한

5월 9일 예전 KBS배 우승(2m32), 5월 21일 요코하마 골드 그랑프리 우승(2m29), 6월 3일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2위(2m30), 6월 25일 정선 전국육상선수권 1위(2m33) 등 올해 실외 시즌에서 순항했다. 하지만,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단 한번도 바를 넘지 못하고 경기를 끝냈다. 다이아몬드리그 높이뛰기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면 순위도 매기지 않는다. 아쉽게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를 마친 우상혁은 7월 12일 태국에서 개막하는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엘리멘탈
2관	엘리멘탈
3관	범죄도시3, 애스터로이드 시티
4관	귀공자
5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파이어하트
6관	범죄도시3, 애스터로이드 시티
9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7관	사네키름 귀공자, 여름날 우리
8관	사네키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라방, 플래시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